인간이 돼 보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국가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우리가 앞으로 세세생생에 돌고 돌면서 그 역경을 당해야만 하는 문제가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부처님이 이러한 법을 설해서 평지풍파를 일으켜 놓고, 팔만대장경을 설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이렇게 고통을 받게 만들었나?" 이러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 근본적으로 우주의 그 광대무변한 악조건과 선조건이 포함돼서 교차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은 상세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의 집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의 가족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세계의 여건을, 모든 거를 역력하게 눈 밝게 보고 귀 밝게 듣고 한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 능력의 여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악조건에도 우리는 얽히고설킨 그 뜻을 풀어 나갈 수 있으며 밀치고 뛰어넘을 수 있으며, 우리가 여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유유히 걸어갈 수 있으며, 아주 당당하게, 도도하게 바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백 청 흑 춘하추동 만 백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러한 만 백화라면 그 향기는 이 우주의 전체를 덮고도 남음이 있으며, 그 향기로 인해서 모든 악한 냄새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악령들의 그, 냄새 피우는 역겨운 문제들을 우리가 그 향기로써 다 소멸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문제도 세계관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 생활이 달라지고 삶의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꽃의 근본인 것이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이 바로 우리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여건이 생김으로써 이것이 불국토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부처님 법이 어떻고 저떻고 하기 이전에 하늘 천, 인간 나기 이전, 미분전(未分前) 이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기에 부처님께서 허구장천 신도 없이 맨발로 말입니다, 그 나라는 더워서도 그랬겠지마는, 한 사람을 봐도 설해 주셨고 두 사람을 봐도 설해 주셨고 또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없는 대로 보이지 않는 그 중생들을 또 제도했고, 자나 깨나 자나 깨나 제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도하신 그 부처님이 지금은 안 계신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앉아 있는 이 방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그분도 안 계실 거지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체 만물, 저 청산이 저렇게 조화를 이루고 청청한 솔잎이 바람 불어 솔솔 날리고, 솔바람에 물은 흘러가고 흘러옴도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다, 저런 깜빡새 모양 청새처럼 모두 지저귀고 꽃은 화창하고, 봄에 저렇게 날이 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이 그대로 진리라는 거, 부처님 법이라는 것을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절에 가면 이렇게 잘해 준다더라. 어느 절에 가면 이렇게 잘되더라."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근본적인 타개를 할 수 있는 내 깨달음의 길을 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가는 그 생활이 어떤 때는 참 안되는 때도 많지요. "스님! 모든 걸 자꾸 거기다가 관하고 거기다 놓으면 잘된다더니 왜 안됩니까?" 이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안되는 것도 놓는 것이지마는 되는 것도 놓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이란 되는 것도 놓고 안되는 것도 놓는 것인데, 가을에 단풍을 모두 바숴 버리면 봄에 꽃 피는 것을 다 바숴 버립니다. 그래서 가을 단풍을 위해서 봄을 깨뜨리고 봄을 위해서 가을 단풍을 깨뜨릴 때 바로 거기에서는 꽃이 스러지면 열매가 맺고, 맺은 그 열매는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내니 우리의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할 것을 무엇이 답답해서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의 열매란 남이 익혀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열리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맛을 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히만 믿는다면, 진실히 물러서지 않고 감사할 줄 알고 모두가, 전체가, 일체 만물이 공했다는 그 자체를 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서 광명이 오고, 스스로서 마음이 맑아지고, 스스로서 조용해지고, 스스로서 객담할 말이 없고, 스스로서 망상 일으킬 이치가 없고, 스스로서 가난이 들 리가 없고, 스스로서 우환이 끓을 리가 없습니다. 모두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서 가환이 있고, 만들어서 복잡하고, 만들어서 싸우고, 만들어서 엇각이 나고, 엇각이 나 가지고 이혼들을 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하랬나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대로 해 놓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자1(남)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계율에 대해서 중요시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스님께선 계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법문 중에서 조금씩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계율과 깨달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계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계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벌써 자기가 상식과 교양, 교육을 다 받고 잘못된 거, 잘된 거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벌써 근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말은 안 해도 좋지만 사회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회의 계율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려들이 사는 도량에는, 여러분이 사는 데나 우리 승려들이 사는 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량' 하면 전 우주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절 도량에서 사는 승려들은 승려들대로 계율이 있고 그렇지마는 그 계율을 무시하고 공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계율도 거기에 근본적으로 바탕스가 맞아야지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근본적으로 상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절에 들어가면 절의 계율을 지켜야 하고, 들에 나가면 들에 나가는 대로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얘깁니다. 계율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절간에서는 시켜서 하는 군대식 같은 그러한 계율이죠.

사회에서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거나 하면 거기는 계율이 없습니까? 모든 게 계율은 제가끔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계율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율을 지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차를 피해서 보도로 간다. 차 속에 들어가지 말라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죽을까 봐 안 들어가요. 그건 저절로 그렇게 돼 있죠? 차가 오는데도 무조건 내가 차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차를 피해서 내가 또 갑니다. 그것이 바로 계율이에요, 근본적인.

집안에서도 그럽니다. 아, 더러운 것은 좀 더 훔치고 깨끗하게 씻고 다듬어 놓는 것도 계율이고,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계율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는 것이 계율에 의해서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행한다 이 소립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돼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돈을 천만 원을 주고 오늘 강도질을 한 번 하라고 그래도 못 해요.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기 이전에,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계율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계율이다, 아니다' 그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것을 계율에다가 딱 얽매어 놓는다면, 이북의 저 김일성처럼 딱 묶어 놓는다면 이건 독재! 자유 계율이 아니라 독재!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율 속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강제 계율 속에서는.

> 식탐을 갖지 말라 하는 것도
>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려면 외롭고 고독하고 배고프고
> 얻다 기댈 데도 없을 때에 자기의 생명수가 홀연히 나서 맛을 보는 거지
> 배부르고 호화롭고 안락하고 마음이 이래서는
> 일심으로 그 철벽을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신 행원 스님이 중국으로 순례를 하시는데도 거기 선맥이 끊어진 듯해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 계율이란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자유스러워야지, 노동을 하면서도 죽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자유스러워야 공부가 되는 거지 강제 계율을 받으면서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그리고 어저께 '식탐을 갖지 마시라' 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외로워야 하고 고독해야 하고 배고파야 하고 얻다 기댈 데도 없을 때에 우리는 자기의 생명수가 홀연히 나서 맛을 보는 거지, 배부르고 호화롭고 안락하고 마음이 이래서는 일심으로 그 철벽을 뚫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있어도 자기 게 아니고, 먹을 게 많아도 자기 게 아니고, 호화로워도 자기 게 아니고, 모든 게 자기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일체 같이 돌아가고 있으니 언짢아할 것도 없고 또 슬퍼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이 항상 마음을 중도에다 두고 중심을 지키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계율 이 자체가 말입니다, 계율이라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몇 시까지 공양을 끝내고, 또는 아침에 몇 시에서부터 예불을 올리면 그다음에 법당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또는 몇 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좌선하고 앉아 있는 거, 참선한다 이런 계율, 또는 오늘은 오늘의 소임을 맡은 사람들의 짜임새가 똑똑 떨어지게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이름해서 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승려라면 그렇고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으레 계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 씻고 여자는 밥한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뭣을 하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몇 시간이면 벌써 어디까지 간다. 회사에 나간다. 장사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나가는 것도 역시 그것도 이름 붙이다 보면 계율이죠. 그러고 나가서도 올바로 해야만 그게 계율이죠. 우리가 올바로 못 하는데 어떻게 계율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화돼 있단 얘깁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시간을 요렇게 요렇게, 요땐 요거를 하고 요때는 요거를 하고 요땐 요거를 하고, 요렇게 짜 놓는 거를 계율이라고 이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입산한 분들도 아닌데 계율 뭐, 이런 거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계율을 지키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만 아마 철두철명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도 참선이니까요. 어느 거 하나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똥도 옆으로 누면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고, 똑바로 누면 쏙 똥이 들어가니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무슨 계율을 지키랬으니까 난 똥을 올바로 눠야겠다.' 이럽니까? 똥 눌 때도 그냥 저절로 '아, 한데다 누면 안 되지. 삐뚤어지면 저기 묻으니까.' 그리고 '가래침을 뱉으면 이거 모두 더러우니까.' 이렇게 스스로서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교양이나 교육이나 또는 상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계율을 지키고 나가는데, 그래서 인간 자체가 첨단을 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벌써 그 재력을 아주 충만하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앉아서 이 우주를 그냥 굴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굴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계율 따위 그런 것은 거기에 포함해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1월 29일 일반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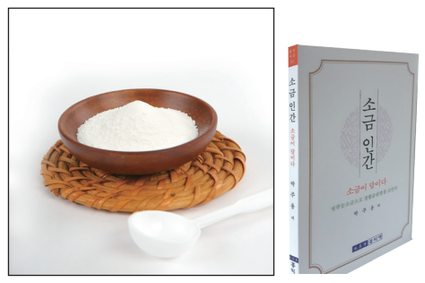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